

## 오늘은 성취 내일은 상승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구인환

꿈은 언제나 아름답고 무지개빛으로 유혹한다. 우리는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 오늘을 산다. 하지만 꿈은 손에 잡히지 않아 김동인의 ‘무지개’같이 쫓아가 안좌할 수가 없다.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내일의 꿈은 오늘에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꿈은 완성된 유토피어가 아니다. 꿈은 상승적 가변성이 있다. 꿈이 무지개와 같이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오늘의 세계가 이루어졌겠는가. 신 중심에서 르네상스 이후 인간 중심의 근대의 산업사회로, 근대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발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 단계는 다층적이지만 꿈은 실현되면서 무지개와 같이 또 한 단계로 상승되는 것이다. 인류의 발달을 시원부터 르네상스까지와 19세기 세기말, 그리고 20세기 이후의 3단계로 나누는 것도 꿈이 실현되는 적층대가 상승된 것이다. 세기말의 진통에 비해 20세기 말은 그대로 순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적층대의 동질성을 말하는 것이다.

내일의 꿈은 오늘에 성취되고 있다. 문제는 오늘을 어떻게 내일의 꿈을 실천케 하는 장으로 만드느냐에 있다. 결국의 내일의 꿈이 실천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있는 것이다. 거꾸로 달아매도 좋다는 이 세상, 그것은 나날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꿈이 성취되는 결실을 볼 수 있다. 오늘 없는 내일이 없고, 오늘이 없는 어제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오늘에 내일의 하늘을 보고, 소용돌이 어제의 그늘을 밟으면서 오늘을 꿈을 실현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고갱의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누구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보다는 성찰을 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있다.

그것은 ① 큰일을 작은 일로 생각하라, ② 잘 될 거야, ③ 하면 돼 식의, 침소봉대하지 않고 일을 직시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자신 있게 성취해 가는 자세를 기저로 하여, ① 개구리 주저앉은 것은 멀리 뛰자는 뜻이다(大器晚成), ②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다, ③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의 자세에 있다. 오늘을 사는 기본자세와 그 목표, 그리고 꿈과 성취하는 삶의 자세를 말한 것이다. 대기만성의 출발로 승리자의 성취에 이르기 위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꿈이 실현되어야 한다. 공자는 하루에 세 번 하고자 하는 일과 한 일을 반성하고 내일 할 일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바로 오늘을 여기차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가을이 깊어 가는 만추(晩秋)! 붉고 갈색으로 물든 마을 동산, 은행나무 나뭇잎이 노랗게

동화를 그린 마을과 거리에 낙엽의 고별축제(告別祝祭)를 벌이고 있다. 바바리 깃을 세우고 낙엽이 뒹구는 산길을 거닐어 오늘을 사는 자화상을 그려 오늘의 성취 내일의 상승을 그려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실히 살고 내일을 꿈꾸는 지표가 될 것이다.

(소설가, 문학과문학교육연구소 소장)